

여자축구, 대만 꺾고 유종의 미

동아시안컵 최종전서 이민아 멀티골·고민정 골 보태 4-0 완승... 1승1무1패로 마감

한국 여자축구가 2022 동아시안컵(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인컵) 최종전에서 대만을 꺾으며 1승1무1패로 마쳤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6일 오후 4시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의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만과의 대회 최종 3차전에서 이민아의 멀티골과 강제림(이상 현대제철), 고민정(창녕WFC)의 골을 보태 4-0 완승을 거뒀다.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렸던 벨호는 1승1무1패로 대회를 마쳤다. 일본-중국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정해진다.

한국은 앞서 일본에 1-2로 패하고 중국과 1-1로 비겼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대만을 꺾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대만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0위로 한국(18위)보다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승리로 상대전적은 20전 14승2무4패가 됐다. 2001년 12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승리를 시작으로 14연승을 기록했다.

이민아는 전반 중반까지 답답했던 흐름을 깨는 선제골을 포함해 2골을 터뜨렸다.

지난해 9월 AFC 아시안컵 예선 몽골전 이후 10개월 만에 맞보는 A매치 골이다.

초반부터 변수가 생겼다. 수비수 임선주(현대제철)가 전반 12분 프리킥 세트피스에서 공격에 참여했다가 상대 골키퍼와 공중에서 충돌해 쓰러졌다. 들것에 의지해 그라운드를 나온 임선주는 김윤지(수원 FC 위민)로 교체됐다.

벨호는 높은 볼 점유율과 여러 차례 세트피스로 기회를 엿봤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이민아가 균형을 잡았다. 전반 35분 장승기(현대제철)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 크로스를 보냈



26일 오후 일본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동아시안컵(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인컵) 한국과 대만의 경기. 이민아가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고 이민아가 쇄도하며 발을 내밀어 대만의 골망을 흔들었다.

선취골이 터지자 득점 물꼬가 터졌다.

전반 38분 강제림이 최유리(현대제철)의 패스를 발로 방향만 바꿔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민아는 2-0으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압도한 전반 40분 추가골을 기록, 전반 3-0 리드를 이끌었다.

벨호는 후반에도 일방적인 공세를 이어갔다.

후반 추가시간 고민정이 네 번째 골을 터뜨렸다. 오른쪽 측면 구석에서 강제림이 올린 긴 크로스를 정확하게 머리로 연결해 대만의 골네트를 갈랐다.

고민정은 A매치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하며 기쁨을 배로 누렸다.

벨호는 이번 대회를 내년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았다.

/뉴시스



▶ 벤투 남자축구 대표팀 감독

“팀으로 평가할 것”

오늘 오후 7시20분 동아시안컵 한일전 11월 개막 2022 카타르월드컵 앞두고 마지막 국내파 ‘옥석가리기’ 될 듯

파울루 벤투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 감독이 국내파 선수들의 마지막 옥석 가리기가 될 2022 동아시안컵 연

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인컵) 마지막 한일전에서 개인보다 팀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7일 오후 7시20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동아시안컵 3차전을 치른다.

앞서 한국은 중국(3-0 승), 홍콩(3-0 승)을 연파하고 2연승을 달리며 조 선두(승점 6)에 올라 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4개국 이 풀리그로 우승을 가린다. 한국은 2차전에서 중국과 무승부를 거둔 2위 일본(승점4·1승1무)과 비기기만 해도 대회 4연패에 성공한다.

한일전을 하루 앞둔 벤투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대회 첫 2경기에서 모두 좋은 점수를 발견했다. 2경기 대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했다. 전체적으로 상대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홍콩과 2차전은 우리의 실수로 원하는 만큼 경기를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당한 승리였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아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등 유럽파가 합류하지 못했다. 해외파 주축 공격수들의 부재 속에 벤투 감독은 중국전에 조규성(김천)을, 홍콩전엔 조영욱(서울)을 각각 선발로 내보냈다.

벤투 감독은 “공격수를 볼 때 공격 과정보다 볼 지 않고 수비도 함께 본다. 두 선수 모두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규성은 대표팀에서 월드컵 예선 등 오랜 시간 함께 했다. 그래서 조영욱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우리의 목표는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11월 개막하는 2022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이번 동아시안컵은 국내파 선수들의 마지막 ‘옥석 가리기’ 가 될 무대다.

조규성, 권창훈(김천), 임원상(울산), 송민규, 백승호(이상 전북) 등 대표팀에 자주 오르내렸던 선수들이 변함없이 팀의 주축을 이룬 가운데 강성진(서울), 고영준(포항) 등 신예들이 득점과 도움을 올리며 주목받았다.

벤투 감독은 “리그를 통해 평소 지켜왔던 선수들이다. 이중 몇몇은 출전 시간이 적었다. 이기혁(수원FC)은 리그에서 20~25분 정도 뛰었다. 그래서 풀타임은 쉽지 않아 홍콩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보다 팀에서 이들이 어떻게 녹아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벤투는 “가장 중요한 건 대표팀에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지 체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팀적으로 개인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는 개인이 아니라 팀 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선수 개인을 평가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시스

돌아온 여제 김연경, 프로배구 기업은행전서 첫 출격

내달 13일 흥국생명-IBK기업은행 조별리그 개막전 돌입

남자부, 내달 21일 우리카드-한전 등 경기 시작으로 열전

돌아온 ‘배구여제’ 김연경(사진)이 이끄는 흥국생명과 IBK기업은행의 열전으로 시작으로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가 막을 올린다.

KOVO컵 여자부는 오는 8월 13일부터 전남 순천시 순천팔마체육관에서 개막한다. 순천에서 KOVO컵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오는 13일 오후 1시20분 흥국생명과 기업은행의 경기가 열리며, 오후 4시부터 GS칼텍스와 일본 히사미츠가 맞대결을 펼친다.



국생명과 총액 7억원에 계약했다. 만 34세의 김연경이 여전히 세계 정상급 기량을 보여

히사미츠는 2021-2022 시즌 일본 여자배구리그 챔피언으로, 초청팀 자격으로 KOVO컵에 출전한다.

김연경의 복귀로 프로배구는 다시 한 번 흥행몰이가 나섰다.

김연경은 지난달 흥국생명과 총액 7억원에 계약했다. 만 34세의 김연경이 여전히 세계 정상급 기량을 보여

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월 18일까지 여자부 조별리그 경기가 펼쳐지며, 19일 준결승전, 20일 오후 1시30분에 결승전이 열린다.

현대건설은 KOVO컵 2연패를 노린다.

KOVO컵 남자부는 8월 21일 오후 1시30분 우리카드와 한국전력, 오후 4시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경기를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조별리그를 치른 후 27일 남자부 준결승전이 열리며, 대망의 결승전은 28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된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우승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린다.

/뉴시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매일 캠페인